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정선희*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외국인을 위한 문학 수업 -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을 예로 들어
 - 1) 서사, 인물 등 내용 이해와 토의 내용
 - 2) 인물 간 관계, 갈등과 배경 이해와 토의 내용
3. <소현성록>을 통해 보는 한국문화
 - 1) 일상과 여가 생활
 - 2) 예법
 - 3) 가치관과 제도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최근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늘어나면서 효과적인 학문 활동을 위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교육론에 근거하여,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 문학을 가르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부터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고전문학을 배우는 것이 적절하며,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활동이 흥미롭게 벌어지는 고전소설을 통해 교육하는 것이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전소설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족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며,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묘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 홍익대학교 국문과 교수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17세기 후반의 생활상과 문화를 잘 담고 있는 <소현성록>을 예로 들어 문학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작품의 서사와 인물을 이해시키고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설명한 뒤에,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상생활과 여가 생활, 예법, 가치관과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이다. 수업 도중에 작품의 예시 부분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인물의 감정에 대해 논하게 하거나, 자국의 생활 문화와 비교하게 하고, 당대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토의하게 하면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의 논의가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외국 대학들의 한국어학과와 한국학과에서의 한국문학감상, 한국문학작품선독, 한국의 문화 등의 수업에 활용되었으면 한다.

□ 한국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문학 교육,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 일상, 예법, 가치관

1. 들어가는 말

한국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다. 유학생, 이주노동자, 전문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등 그 층위도 다양하고 인종과 국적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며 살아가거나 교육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자국에서 한국어과에 다녔거나 한국어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들은 고급 학습자인 것이다. 이들은 일상적이고 단순한 한국어는 비교적 잘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문화나 가치관, 관습 등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 특히 인문계열이나 상경, 예술 계열의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에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이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국 문화 관련

서적을 읽거나 영상 매체를 보면서 문화를 익히고 현대문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알아가지만, 고전문학을 통해 전통적인 것을 배우는 일도 필요하게 된다. 지금의 한국인의 모습은 어디에서 연유한 걸까? 생각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걸까? 예의와 생활방식, 사고방식, 인간관 등은 어떠하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등등의 의문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문학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사상과 가치관 등을 같이 익히게 되어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이를 외국인 교육에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기에,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권의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교과목으로 외국인 전용 한국어 문학 수업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런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이해력, 사고력, 논리력을 훈련하고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¹⁾

언어 안에는 한 민족이나 사회 구성원이 세계를 바라보는 의식이 담겨 있으며 이는 문화적 산물로 계승되고 발전하기에 언어 교육은 의사소통을 넘어 문화교육을 지향해야 둘 다 잘 교육될 수 있다는 논의들도 있다.²⁾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언어 교육에 더하여 문화 교육까지 하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자국민들도 언어를 배울 때에 문학을 병행

1) 신영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통권 18, 2016.

2) 김민라,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 2014; Tran Thi Huong,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하여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문학을 배움으로써 문화와 사상까지 배울 수 있기에 종합 교육,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현대문학을 교육의 제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전문학 중에서는 설화와 신화 몇 가지가 활용될 뿐이다.³⁾ 그나마 외국대학의 한국어학과의 교과목에는 한국문학을 읽힘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과목으로 한국문학작품선독, 한국고전문학감상 등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비중이 매우 작다. 한국학과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 대학들에서도 <금오신화>,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춘향전>, <운영전> 정도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⁴⁾ 베트남 대학에서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문화교육을 시작하여 하노이국립인문사회대, 호치민국립인문사회대 등에서 한국학과를 운영하면서 한국학(한국문화)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하노이국립외국어대 등에서는 한국어와 한국학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 한국 전통문화 이해, 한국의 문학, 한국의 관습, 한국문화와 사회, 한국의 문화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많은 한국어 강사들이 한국문화와 한국문학 관련 교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⁵⁾

-
- 3) 양민정, 『고전소설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제지역연구』 7권 2호, 2003;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2006;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2011;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체계 확장을 위한 시론-〈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 2013. 6; 한성금, 『고전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2, 2015. 한편, 한국문화 자체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 4) 문리화, 『〈운영전〉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갈등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독해』, 『문학치료연구』 46, 2018. 1.

이러한 흐름과 요구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고전문학 중에서도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활동이 흥미롭게 벌어지는 서사문학 즉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고전소설은 가족, 애정, 전쟁, 이별, 가난, 탐욕 등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담고 있으며 공감대도 크게 형성하고 있기에 역사서나 사상서보다 쉽고 재미있게 읽힐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와 가치관이 비교적 생생하게 담겨 있고 현대역도 잘 되어 있는 작품이 있다면 교육의 제재로 적절할 것이다. 고전에서 발견되고 현대의 한국인에게도 계승되고 있는 것들을 외국인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중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17세기 중후반부터 향유되던 긴 길이의 국문 소설로, 가문소설, 대장편소설, 대하소설 등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한 작품이 몇 십 권에서 100권에 이르는 길이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수십 명이고 사건이나 갈등도 매우 다양하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3대(代)에서 5대에 이르는 가문의 이야기,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혼사에 얽힌 갈등, 애정 갈등, 부자 갈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가족 서사의 전형을 보여주며, 다양한 인물들의 생생한 묘사와 생활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나라 소설의 기법적인 완성도와 세련됨, 선악관, 가치관, 인생관 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 현실의 삶을 반영하거나 굴절하여 담고 있기에 선인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⁶⁾

그 중에서 <소현성록>은 국문장편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작

5) Tran Thi Huong,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6)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2010.

품이며 이후에 파생작, 모방작, 발췌본 등이 창작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평되기도 한, 인기 있던 작품이다. 총 15권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진 이화여대 소장본이 선본(善本)으로 인정되는데, 1~4권은 본전(本傳), 5~15권은 별전(別傳)이라 쓰여 있다. 이를 합하여 <소현성록>이라 부르기도 하고 <소현성록>연작이라 부르기도 한다. 원전이 권당 120면 내외의 분량인데 현대역 출간본도 400면 정도의 책 4권이나 되는 장편 소설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본전이며, 이는 한 권으로 출간⁷⁾되어 있어 접하기에 용이하다. 현대어역과 주석이 읽기 쉽게 되어 있어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는 독자라면 큰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외국인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고전소설 중에는 『금오신화』, <운영전>, 연암의 소설들이 들어 있는데 이들과 달리 상징적이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많기 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많다. 또 일상생활이나 심리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느리게 전개되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 쉬울 듯하다. 또한 실제 수업 시간에 읽기 자료로 쓰기에 적합한 부분들을 본고에서 예문으로 제시할 것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면 수월할 것이다.

<소현성록>은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 즐겨 읽혔고 여성 교훈서들을 충실하게 담았기에 수신서로 권장되기도 했으나⁸⁾, 당대 여성들의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내면서 그녀들의 세계와 의식을 탐색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소설사의 전통을 확립했다고도 평가 받는⁹⁾ 작품이다. 인물들의 성격이 확실하고 개성 있으며, 심리 묘사나 장면 묘사가 섬세하고, 다양한 갈등 양상이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문학 수업의 제재로 적절하다.

7) 정선희·조혜란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책의 현대역으로 하지만, 서지사항은 원전의 권수와 쪽수를 제시하기로 한다.

8)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9)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1999.

2. 외국인을 위한 문학 수업

-국문장편 고전소설 <소현성록>을 예로 들어

1) 서사, 인물 등 내용 이해와 토의 내용

<소현성록>의 ‘본전’은 소현성의 출생담부터 시작하여 그와 세 부인(화씨, 석씨, 여씨)과의 혼인과 갈등, 그 해소 과정을 중심으로 누이인 월영, 교영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된다. 4권 마지막 부분에서 소현성이 죽고 일단 서사가 마무리되며, ‘별전’을 <소씨삼대록>이라 한다면서 끝난다. 본전은 ‘남주인공 소현성(소경)에게 투영된 어머니의 소망과 이념을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¹⁰⁾이라고 할 정도로 양부인에 맞추어 움직인다. 그래서 소현성은 흠어머니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가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혼인하고 제가(齊家)하고 효를 행해야 하는, 관념적이고도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화부인, 석부인 등 아내들을 길들이고 집안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엄격하다. 소현성의 자손은 10자 5녀(운경, 운희, 운성, 운현, 운몽, 운의, 운숙, 운명, 운변, 운필, 수정, 수옥, 수아, 수빙, 수주)이다.

<소현성록>의 서사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처사 소광은 부인인 양부인이 월영과 교영을 낳고 소현성을 잉태한 지 7개월 만에 죽는다. 첩으로 석파와 이파가 있다.
- ② 소현성은 14세에 장원급제하고 월영은 한학사와, 교영은 이학사와 혼인한다. 교영이 유배지에서 실절(失節)하여 양부인으로부터 독주를 받아 죽는다.
- ③ 소현성은 화씨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현성에게 둘째 부인을 권하는 석파와 화씨의 갈등이 커진다.

10)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2006.

- ④ 화씨는 석파를 욕한 죄로 현성에게 박대를 받자 앓아누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용서를 받고 둘째 아들을 낳는다.
- ⑤ 소현성은 석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고도 부인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석씨는 아들을 낳는다.
- ⑥ 소현성은 추밀사 여운의 딸 여씨와 억지로 혼인하는데, 여씨는 다른 부인들을 시기하여 석씨가 실절했다는 누명을 씌워 친정으로 쫓겨나게 한다.
- ⑦ 여씨는 계략이 밝혀져 쫓겨나고 석씨는 누명이 풀려 돌아온다.
- ⑧ 여운의 모략으로 소현성은 강주 지역 안찰사로 가서 몇 가지 사건을 처리하고 열 달 만에 돌아온다.
- ⑨ 단경상이라는 이를 자녀들의 스승으로 삼았는데 자녀를 차별하는 문제로 화부인과 갈등을 빚는다.
- ⑩ 소현성이 없을 때에 화부인과 집안의 집사인 이흥이 내외사 구분에 대해 갈등을 빚자 현성이 화부인을 꾸짖는다.
- ⑪ 시간이 흘러 소현성의 자녀들은 모두 혼인하고 집안은 평안하다. 양부인이 죽자 소현성도 죽는다.

이상의 기본 설명을 한 뒤, 주요 인물들에 관해 알려 주면서 관련되는 부분을 예로 들어 준다. 작품 전체를 함께 읽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요약 정리된 것만 읽게 하는 것도 문학 교육 방법으로 좋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도 수업 시간에 함께 읽고 토의할 수 있도록 작품 예문들을 충분히 제시한다. 학생들에게 낯선 단어나 인명, 고사성어 등에는 각주를 붙여 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은 소현성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해 소개하는 내용이다.

처사가 글을 지어 읊으면 물결이 기름으로 씻은 듯하며 교룡(蛟龍)이 귀를 기울여 그 글에 항복하니 문장과 재주가 이와 같았다. 또한 용모가 관옥(冠玉)¹¹⁾ 같고 풍채가 가을 달 같으며 모습과 태도가 준엄하였다. 마치 사람

가운데 신선이고 까막까지 중 봉황 같아 속세의 티끌이 없으니 진정 깨끗한 산사람이고 기이한 처사였다.

일찍이 부인과 함께 한 지 십여 년이 되도록 부인은 처사가 희롱하거나 성나서 소리 지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처사는 부인이 크게 웃거나 거꾸로 말하거나 갑자기 성을 내어 소리를 높이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남편은 과묵하고 부인은 곧고 깨끗하며, 남편은 순하고 편안하며 부인은 부드럽고 온화하여 서로 어긋날까 두려워하고 예의를 공경하여 부부가 출입할 때는 반드시 서로 일어나서 보내고 일어나서 맞으며 방석에서 물러나 예의를 갖추었다. 집안사람과 종들과 온 집안이 일찍이 저 부부가 가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바로 공경하는 손님과 같았다.¹²⁾

아버지 소광은 처사, 산사람 같은 생활을 했고 문장력이 뛰어났으며, 성품은 과묵하고 준엄하며 순하고 편안하다. 양부인도 곧고 깨끗하며 예의 있고 감정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성품이며, 둘은 부부지만 엄격히 내외(內外)했으며 공경했다고 하였다. 이런 특성은 당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상일 가능성이 높다. 아들 소현성에 대한 평가를 덧붙여 보면 거의 완벽한 인간상이 그려진다.

다음은 소현성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성격이 조용하며 침착하여 그가 기뻐하거나 노하는 것을 남들이 알지 못했고, 가벼이 웃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서는 유순하면서도 특 트였고 흠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봉양하는 일에는 정성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비록 그 옛날 증자(曾子)¹³⁾라도 이보다 낫지 못할 바였고, 동기

11) 관옥(冠玉) : 관의 앞을 꾸미는 옥으로, 잘 생긴 남자의 얼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소현성록> 1권 6쪽.

13) 증자(曾子): B.C. 505-436?. 공자의 문하생으로 이름은 증삼(曾參), 자는 자여(子輿). 『대학』의 저자이며, 유가(儒家)에서 강조하는 효를 재확립하는 데 힘쓴 인물로 알려

간에는 우애 있고 서모를 공경하였으며 집안 다스리는 것이 한결같았다.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는데도 청렴하고 검소하여 입은 옷이 소박하였고 성품이 조용하여 사람들 사귀는 일을 그쳤다. 그러니 평생토록 친구가 십여 명을 넘지 않았다. 또 여자를 꺼려 매일 외당에서 향을 사르고 글을 읽어 문장의 이치를 깨닫는 데 더욱 힘썼고, 행실을 닦아 맑은 도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자식을 훈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성인(聖人)들의 풍속을 이으니 오복 중 흠 잡을 것이 없는 팔자였다.¹⁴⁾

그도 아버지처럼 유순하면서 시원스럽고 조용하고 침착하였으며 감정 표현을 격하게 하지 않았다. 더하여 효성과 우애가 깊었고 집안 다스리는 것도 잘 하였고 소박하고 검소하고 청렴하였으며 사람들과 휩쓸려 다니지 않고 진중하게 친구를 사귀었다. 글 읽고 문장 쓰고 도학(道學)을 닦는 일에 힘쓰면서 성인들의 풍속을 이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소현성의 누이들인 월영과 교영이 소개되는 부분이다.

장녀 월영이 장성하여 13살이 되었다. 월영은 골격이 시원하고 눈빛이 빛나서 푸른 바다에 밝은 구슬이 솟고 지는 해가 약목¹⁵⁾에 걸린 듯하였으며, 거울 같은 눈매와 먼 산 같은 눈썹, 조용하고 곧은 기질은 가을 서리 같은데, 화려하고 시원시원하여 재주 있고 아름다운 여자가 될 기상이 많았다. 월영은 아우 교영과 더불어 같은 방에서 지내면서 여공(女功)을 다한 여가에 글을 읽었다. 재주가 빠르고 필법이 정교하여 사령운(射靈運)¹⁶⁾보다 못하지 않았고 인물은 반듯하게 생겼지만 장난치기를 좋아하였다. 교영은 온화하고

저 있음.

14) <소현성록> 1권 1~2쪽.

15) 약목(若木): 해가 지는 곳에 서있었다는 나무. 해가지는 곳을 의미함.

16) 사령운(射靈運): 385~433.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동진(東晉)의 산수시인(山水詩人).

아담하면서도 기발하여 봄비 촉촉한 푸른 이끼 같았다. 사람됨이 약한듯하나 실은 너무 활발하여서 맑은 것에 가깝고, 성격이 부드러워 굳은 결심이 없으니 부인이 늘 안 좋게 여겨 탄식하였다.

“월영은 밖으로는 화려하나 마음은 얼음 같고, 외모는 유순하고 활발하나 그 속은 돌 같으니, 비록 날카로운 칼끝 같은 쟁기로 위협해도 그 곧은 마음은 고치지 않을 아이이지. 하지만 교영은 밖으로는 냉담하고 뜻이 팽팽하게 선 듯하나 그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거미줄 같구나. 그러니 내가 근심하는 것은 이 아이가 소씨, 양씨 두 가문의 맑은 덕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로구나.”¹⁷⁾

월영과 교영은 대조적으로 서술되는데, 특히 월영의 곧음과 얼음 같고 돌 같음은 긍정적으로, 교영의 부드러워 굳지 못함, 온화하고 기발함은 부정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주목된다. 앞에서 남성은 온화하고 겸손함이 칭탄된 반면, 여성은 곧고 굳음이 칭탄되어 현대의 남녀 평가와는 다소 다름을 알 수 있다. 며느리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석씨는 아름답고 후덕하며 도량 있다¹⁸⁾고 하였으며, 서모인 석과는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으며 어질다¹⁹⁾고 하였다. 화씨는 성질이 과도하고 조급하며 성품이 편협하고 엄한 기운이 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서술되었다. 특히 석씨가 온유하

17) <소현성록> 1권 17~18쪽.

18) 여공(女功)과 부인의 후덕함이 갖추어졌으니, <소현성록> 1권 77쪽. ;하늘에서 내려 주신 강산의 빼어난 기운과 깨끗하고 맑은 기운이 어리어 아름다움이 보통 사람보다 빼어났다. 또 마음에는 태임(太姪)과 태사(太似)의 덕과 도량을 깊이 간직하였고 (중략) 그녀는 날렵했지만 가볍거나 키가 작지는 않았으며, 탐스럽게 살짝 아름답지만 투박하지는 않아, 천태만광(千態萬光)이 태양의 빛을 가렸다. <소현성록> 2권 32쪽.

19) 석과는 영리하고 피가 많아 잘 둘러대어 말이 물 흐르듯 하고 재치와 화려함이 지극하여 진정 여자 중 소진(蘇秦) 같았다. 석과는 또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 뜻이 너무 활발하기에 살짝 굳센 뜻이 없고 마음이 고지식하지 않았으나 본래 친성은 아주 어질었다. <소현성록> 1권 82쪽.

고 단엄하지만 마음속은 가을의 서리 같아 남편이 잘못했을 때에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칭찬²⁰⁾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부드럽고 지조 없는 것보다는 바르고 곧음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토의 내용 - 이상의 수업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인물을 설명한 후에, 외국인 학생들에게 자국에서 남성과 여성을 평가하는 덕목과 기준은 어떠한지 이야기하게 한다. 또 자국 문학 중 가족 서사가 주를 이루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면서 이 소설과 비교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기문의 삼대(三代)에 관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이 작품을 실감 나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 관계나 갈등에 관한 다음 이야기로 나아가갈 토대를 마련한다.²¹⁾

2) 인물 간 관계, 갈등과 배경 이해와 토의 내용

이제 다음 단계로, 작품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 인물 간 관계나 갈등과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예문들을 수업 자료로 제시한다.

이 작품에서는 부부간, 모녀간, 고부간 등 다양한 관계와 갈등이 설정되어 있으니 이를 통해 당시의 가족 관계도 알 수 있게 된다. 먼저 부부 갈등을 보면, 첫 번째로 주목되는 것이 아내가 어머니에게 불경(不敬)했을 때에 매우 엄격하게 단죄한다는 점이다. 소현성은 아내 화씨가 서모가 둘째 부인을 천거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녀에게 욕한 일²²⁾을 두고 화

20) <소현성록> 4권 17~18쪽.

21) 각 절의 마지막 또는 일정한 내용 설명이 끝난 뒤에 토의할 내용들을 상자 속에 제시한다.

22) 화씨가 갑자기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 일찍이 서모와 원수진 일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를 미워하여 다른 아내를 천거하는지요? 서모가 만일 그만두면 나도 말겠지 만 끝내 내 원수를 만들 것 같으면 전제(專諸)의 어장검(魚腸劍)을 한번 찌러서 한을 갚고 나 또한 죽을 것이오.”

가 나 그 유모를 대신 때리고²³⁾ 이후로 8개월이나 아내를 찾지 않는다. 화씨가 속이 상해서 병이 나고 어머니나 누나가 화해하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후에도 이 부부의 갈등이 크게 부각되는 사건이 한 번 더 있는데, 바로 내외사(內外事) 분리로 인한 갈등이다. 가장(家長) 소현성은 내외사를 분리하기를 바라는데, 자신이 집에 없을 때에 화씨가 집사 이홍의 권한을 침범하여 다투자²⁴⁾ 이것이 그릇되었다고 책망하면서 별거까지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런 말을 들은 화씨는 더욱 화가 나 이홍을 죽이겠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시누이 월영의 도움으로 남편과 화

석과가 차갑게 웃으며 말하였다. “남자가 나이 적어 헤아림이 없구려. 여자의 도는 유순한 것이 귀하고 투기는 칠거지악에 분명히 들어있으니 자고로 투기하는 숙녀는 없었지요. (중략) 그런데 말씀이 이렇듯 사리에 맞지 않으시니 첩을 원수라고 하신다면 우리 양부인께서는 스스로 원수라고 생각하시면서 첩들을 모으신 것입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장현동에서 늙었지만 일찍이 돌아가신 처사와 양부인께 책망을 듣지 않았고 사랑을 어루만져 길러내어 정이 산하(山河) 같으니 비록 남자에게 어장검을 받는다고 해도 서러워서라도 기특한 숙녀를 천거해야겠습니다.” <소현성록> 1권 93~94쪽.

23) 사람들을 명하여 화씨의 유모를 잡아내라 하였다. 그리고 죄를 물어 크게 꾸짖고 중으로 하여금 큰 매를 골라서 장 60대를 치니 유모가 기절하였다. 석과가 도리어 말리는데도 ‘끌어내라’ 하고 서모를 향해 재삼 겸손하게 말하고 위로하니 석과가 감격하고 누우쳤다. 그러나 화씨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을 풀지 못하였다. <소현성록> 1권 97~98쪽.

24) 원래 화부인의 권세가 가장 커서 집안의 시녀들이 모두 떠받들지만, 승상의 처가(治家)함이 엄하여 내당(內堂)의 시녀들이 감히 중문(中門) 밖으로 나가 외당(外堂)의 종들과 만나는 일이 없었다. 또 양부인이 내당의 일을 총괄하지만 승상이 장성한 후에는 외당의 일을 알지 못하니, 하물며 젊은 부인이야 어찌 작은 호령이라도 문밖으로 나가게 하겠는가? 또 승상이 이홍을 얻은 후에는 스스로 집안일을 하지는 않고 단지 그가 아뢰는 말을 들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오늘 화씨가 심하게 화를 내면서 상황을 모두 살피지 않고 이홍을 가두라고 하니, 이홍이 어찌 내물이 좇아냄을 달게 받겠는가? 다만 주부(主簿)의 인끈을 벽에 걸고 갖과 띠를 벗어놓고 나가버렸다. 화부인이 이홍이 달아난 것을 듣고 더욱 노하여 종들을 풀어 잡으려 하니, <소현성록> 4권 106쪽.

해한다. 월영과 합작품으로 사과 편지를 쓰는데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적절하고도 당당하게 넣었다.

“제가 비록 무례하지만 어려서부터 성현(聖賢)의 글을 읽어 예의를 조금 압니다. 그옥이 생각건대, 나라의 황후와 황제가 높으신 것이 같고 집의 가장(家長)과 가모(家母)가 중요함이 같습니다. 군자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²⁵⁾의 근본이라고 하지만, 자고로 남자가 나라의 일을 다스리면 집의 일을 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상이 나라의 큰 신하로 조정의 일을 살피느라 겨를이 없어 이흥에게 맡겨 집의 내외사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중략)

오늘 경치를 구경하려 한 것은 승상이 없기를 기다려 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평안하여 여러 자녀와 함께 노시니 한가한 때를 타 소·윤·석 세 부인과 더불어 후원을 보면서 산수(山水)의 성함을 보고 내년의 누에 치기를 상의하려 한 것인지 경치를 구경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흥을 잡아맨 것은 그가 무례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상공도 오히려 저를 모욕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가 가신(家臣)으로서 어지러운 말을 하니 갑자기 성이 나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는 승상이 집을 다스리는 데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만약 승상이 외당에 계셨다면 제가 그 사이에서 호령하지 못하였겠지만 상공이 조정에 들어가 돌아올 때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집에 주인이 없다고 여겨 종들과 흥이 무례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집의 여주인이 하나의 규범을 굳게 지켜 무너지는 위의를 붙들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략)

또 부부 사이를 말하지 않고 저를 벗으로 여기더라도 저는 상공을 안 지 열두 해가 되었고 흥은 다섯 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후(先後)를 분변하지 않으시니, 흥을 위하는 정성은 지극하다고 할 만하지만 저에게는 박절하

25)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행실을 닦고 집안을 바로잡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함.

시균요 각각 따로 집에 있자고 하시는데, 여자의 삼종지의(三從之義)는 중요한 것입니다. 상공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잊어 버리셨지만 저는 ‘여자는 반드시 지아비를 따르고 부모형제를 멀리 한다’는 말을 지키려 합니다. 상공이 저를 버린다면 뱃속의 아이를 품고 의지하여 윤기(倫紀)의 삼종(三從)을 오로지 지킬 것이니 마음대로 처치하십시오. (후략)²⁶⁾

아무리 내외사를 분별한다 해도 아랫사람인 이홍이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음을 말하면서 부부 사이는 주인과 집사 사이보다 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친정으로 가라고 했던 것에 대해 지아비를 따를 뿐 친부모와 형제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

* 토의 내용 -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의 부부의 위상, 내외사에 대한 생각 등을 설명해준 뒤에 자신이 만약 화부인이라면 어떻게 답신을 할지 써보라고 한다. 그 외에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을 떠올려 보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써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소현성과 그 둘째 부인 석씨의 갈등은 셋째 부인 여씨의 계교로 말미암는다. 다음은 여씨가 얼굴이 바뀌는 개용단(改容丹)을 먹어 석씨가 된 뒤에 방탕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다.

석씨가 가까이 와서 상서의 손을 잡고 머리를 무릎에 얹으며 말하였다. “낭군이 어찌 저에게 매몰차게 대하십니까? 바라건대 제가 그리워하는 정을 어여삐 여기십시오.”

드디어 방탕하고 더러운 행동을 심하게 하였다. 상서가 다만 기괴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석씨가 저럴 리가 만무한데, 아닐 것이라 생각해도 또한

26) <소현성록> 4권 116~119쪽.

용모와 목소리가 분명하고, 만삭의 몸도 전혀 의심할 것이 없으니 일단 놀라고 의심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의 마음 알기는 어렵도다. 우리 어머니의 사람 알아보심과 나의 사람 알아봄이 다른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닌데, 석씨를 몰랐구나.”²⁷⁾

소현성은 석씨의 이런 행동 뒤에 그녀가 외간 남자 설씨와 사통하여 자식까지 가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그녀와의 혼서지를 불태우고 친정으로 보내고는 그 거처를 무너뜨려 자취를 없앴다. 식구들이 석씨를 두둔하며 진상을 더 알아보라 해도 심하게 내치는 것이다. 이후 여씨가 화씨로 얼굴을 바꾸고 화씨를 모해할 때에 정체가 밝혀진 뒤에야 석씨에 대한 오해도 풀리게 된다. 하지만 바로 사과하지 않고 석씨의 운수가 나빠서 이런 상황에 빠진 것으로 이해되면서 소현성의 병간호를 하러 석씨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 토의 내용 - 이 작품에서는 소현성이 완벽한 남성으로 설정되었기에 아내들을 은근히 박대하거나 오해하는 등 폭력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운이 나빠서 그렇다는 식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자신이 화씨나 석씨라면 어떤 심정일지 이야기하거나 그녀들에게 편지를 씬으로써 공감하고 위로해 보게 한다. 반대로 소현성에게 반발하거나 그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즉 인물과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여 다시 생각하거나 감정을 소통하게 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모녀 갈등이다. 양부인과 둘째 딸 교영의 갈등인데, 갈등이라기 보다는 교영이 잘못된 행실을 하자 죽기를 강요하는 것이기에 일방적이

27) <소현성록> 3권 16~17쪽.

라고 할 수 있다. 교영은 시대 식구들이 역모에 휘말려 죽고 자신은 귀양을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어머니는 열녀전을 주면서 이를 읽으면서 절개를 지키라고 당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통(私通)을 하다가 귀양에서 풀려나 돌아온 뒤에 그 사실이 밝혀지자 양부인은 독주를 주면서 죽으라고 한다. 아무리 빌어도 끝내 마시고 죽게 한다는 면에서 독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정절 이데올로기 주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므로 뒤에서 다시 거론한다.

마지막으로 고부 갈등을 들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강력한 권한과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 다만, 양부인과 화씨, 석파와 화씨 사이의 갈등이 소현성의 둘째 부인 들이는 것으로 야기되어 해소되기까지가 길게 형상화되어 있다. 당시에는 남편이 다른 부인을 얻어도 투기(妬忌)하지 않아야 현숙한 아내라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투기를 한다면 책망을 받는 것이다. 화씨는 억울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길들이는 차원에서 그녀에게 남편의 혼인 날 예복을 짓게 한다. 이를 수행하면서 화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잘 참고 혼인날 의연히 있음으로써 갈등이 사라지고 남편에게도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 토의 내용 -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어머니가 딸을 죽게 한단 지, 며느리에게 남편이 새 부인을 얻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 등의 작품 속 상황이 학생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며 비판할 거리가 많을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정절 이데올로기나 가부장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등이 깔려 있었던 것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자국에서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고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게 한다.

3. <소현성록>을 통해 보는 한국문화

1) 일상과 여가 생활

앞에서 행한 작품에 대한 기본 이해와 심층 이해 수업 이후에는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조선후기의 한국 문화에 대해 읽고 토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대 한국어 수업이나 한국 문화 수업에서는 알기 어려운 우리 문학과 문화의 전통과 연원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며, 예와 지금을 비교하거나 우리나라와 자국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는 사대부 집안의 일상과 여가 생활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먼저 남자 아이의 일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자들과 서실에서 지내면서 새벽닭이 처음 울 때 세수하고 어머니 숙소 창 밖에서 소리를 나직이 하여 문안을 여쭙고 회답을 기다려 두 번 절하고 물러난 후 다음날 아침 인사드릴 때 의관을 바르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기운을 평안하게 하여 어머니 상 아래 꿇어앉은 채로 모시면서 혹 글 뜻도 여쭙고 혹 시사(詩詞)를 배웠다. 이렇게 하루 네 번 문안드리는 일과 행실이 『소학』보다 더한 일이 많으니 부인이 그가 행실을 너무 닦아 몸이 상할까 두려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금하였다.²⁸⁾

새벽에 일어나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글과 시를 배운다. 장년이 되어서는 앞에서 소현성의 인물됨을 말하면서 본 것처럼 늘 도학을 닦고 청렴하게 지내면서 주로 서헌(書軒)에 거처한다. 노년이 되어서도 자손들과 함께 서헌에서 문장을 짓거나 책을 읽고 시를 읊조리면서 노닌다. 여성의 경우, 시어머니 처소에서 식사 준비를 살피거나 자신의 처소에서 책

28) <소현성록> 1권 15쪽.

을 읽거나 시를 읊조린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물건들의 출납을 총괄하며, 서모는 실제로 그 출납을 시행하고, 시녀들은 바느질이나 집안일을 주로 한다.

양부인이 5대손까지 보았어도 집안일을 놓지 않으니, 화·석 두 부인이 또 한 예의와 법도를 넘지 않아 방 안의 작은 것도 사사로운 재물과 그릇이 없 이 모두 양부인에게 드려 창고 안에 넣었다가 승상과 자기에게 쓸 곳이 있으면 아뢰고 얻어 썼다. 또 비단을 얻어도 다 창고에 넣어 쓸 데가 있으면 고한 후에야 마음에 맞게 내어 쓰니 집안사람들이 다 변함없는 일로 알아 사재(私財)를 집에 두면 시녀라도 무례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양부인이 네 계절에 맞게 며느리와 두 딸을 불러, 석파에게 창고를 열고 이파에게 좋은 비단을 가려내게 하였다. 눈앞에서 네 부인에게 부부의 옷을 마름질하고 손자들의 옷 지을 것을 준비하여 시녀에게 지으라고 맡겨 짓게 한 후 주었는데, 반 마디 터럭만큼도 차이가 없었다. 다만 윤씨는 친가가 없고 사사로운 재물도 없어 대접해 주는 사람이 없기에 더 거두어 한 단계 더 주시니, 거룩한 덕이 이와 같았다.

네 부인이 몸이 한가하고 여력이 있었으나 의복에 간여하지 않으며, 손님 대접할 수를 헤아려 양부인 앞에서 석파 등과 더불어 술과 인주를 도울 따름 이었다. 소씨와 윤씨 부인도 자기 남편의 손님맞이를 시녀에게 맡기고 아는 것이 없었으며 단지 장복(章服)²⁹⁾과 관복(官服)을 시녀가 잘못 준비할까 하여 스스로 짓는 일 외에는 종일토록 시사(詩詞)를 화답하여 부르고 바둑으로 소일하여 시인(詩人)의 모습과 풍류 있는 거동이 있었다. 유독 석씨만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느질에도 간섭하지 않았다.³⁰⁾

여가에는 여성들도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고 바둑을 둔다. 후원에 모

29) 장복(章服): 직품(職品)을 가진 부인의 예복.

30) <소현성록> 4권 124~126쪽.

여 꽃구경을 하며 답소를 나눌 때에 서로의 자질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인생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주고받는다.³¹⁾ 남녀가 함께 하는 것은 잔치 자리에서, 투호 놀이를 할 때 등인데 이때에 임신이나 부부간 화목도 등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한다. 부부간에는 항상 예의를 지키며 남들이 있는 데에서는 말을 섞지 않는다.³²⁾ 남편은 아내의 침소에 한 달에 열흘만 가는데 그럴 때라도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이부자리를 봐 드린 뒤에 가며, 나머지 이십 일은 서당에서 글을 읽는다.³³⁾ 남성들은 여

- 31) 소씨가 윤씨와 함께 백화헌으로 갔는데 상서가 마침 나갔기에 이곳이 고요하였다. 두 사람이 꽃들을 구경하다가 시녀에게 이·석 두 서모와 화부인과 석부인을 나오게 하였다. 네 사람이 모두 오니, 소씨가 좌우 시종들에게 소나무 정자 아래에 용문석을 깔라 하고 벌여 앉아 술과 안주를 내오게 하였다. (중략) 석파가 크게 웃고, 먼저 한 잔을 부어 소씨 앞에 가 치하하며 말하였다. “부인이 열네 살에 한씨 집안에 들어가 어사의 방탕함을 만났으나, 기색과 행실이 맑고 여유로워 마침내 방탕한 사람을 감동케 하시고 옥 같은 자녀를 좌우에 벌여 계시니 태임, 태사와 같은 덕이라도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소씨가 웃으며 말하였다. “서모가 나를 어린아이 놀리는 듯하시군요.” 석파가 웃으며 답하였다. “제 진심입니다.” 소씨가 기분 좋게 잔을 기울이니, 석파가 또 윤씨에게 나아가 위로하며 잔을 바치고 말하였다. <소현성록> 2권 65쪽.
- 32) 시랑이 여전히 훈훈한 화기를 띠었지만 어머니 앞이라 머리를 숙이고 크게 웃으며 말이 없었다. 그러자 월영이 웃고 동생을 놀리면서 화씨에게 해산달을 물었다. 바야흐로 임신 8개월인 줄 알고 서로 아들 낳기를 바라면서 축하하였다. 생의 행동거지가 이 같으므로 어두운 방 가운데서도 희롱하는 일이 없고 겨우 깊은 밤에야 부부가 잠 자리에 들어 손을 잡은 일과 해산에 대해 묻는 것 같은 일을 집안사람들이 처음 보고 크게 놀리며 웃었으니 그 단정하고 엄숙하고 정숙함을 알 만하였다. <소현성록> 1권 74~75쪽.
- 33) 침소에 들어가기를 드물게 하여, 한 달에 열흘은 침소에 들어가고 이십일은 서당에서 글 읽기에 힘썼다. 생이 어머니께 가서 기운을 온화하게 하고 낮빛을 편안하게 하고 누이와 두 서모와 더불어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에도 혹 격조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돕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좋은 분위기를 돋우기는 하였으나 행여 화씨에게 눈길을 보내는 일은 없었다. 또 녹운당에 가는 날이라도 밤늦게까지 어머니를 모셨다가 친히 이부자리를 펴드리고 베개를 바르게 해드려 어머니께서 누우신 후에야 물러나와 화씨 방에서 잤다. 그리고 새벽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문안을 드리고 대궐에 가서 조회에 참석한 후 어머니께 하루 세 때 문안하고 서당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여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 사서를 공부

가에 유산(遊山)을 하거나 뱃놀이를 하며 시와 노래를 읊조린다.

* 토의 내용 - 자국의 고전문학에서는 선인들의 일상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였는지, 부부간의 예의나 자녀 교육법은 어떠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자국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여가 생활을 해왔는지, 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형상화하였는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과 비교하게 한다.

2) 예법

조선후기에는 혼례(婚禮)나 상례(喪禮)와 같은 예법을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하여 실천하였는데 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혼례는 여섯 가지 예의 즉 육례(六禮)를 실행하는데,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절차를 말한다. 납채는 남자의 집에서 청혼 예물을 보내는 것을, 문명은 여자의 출생 연월일을 묻는 것을, 납길은 문명 후 길한 징조를 얻으면 이것을 여자의 집에 알리는 일, 납폐는 혼인을 정한 증거가 되는 예물을 여자 집에 보내는 것을, 청기는 남자 집에서 결혼날짜를 정하여 여자 집에 지장이 있는지의 유무를 묻는 것을, 친영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이른다. 다음에 제시하는 소현성과 석씨의 혼인 장면을 통해 이러한 예법을 설명할 수 있다.

길일이 다다라 매자(媒子) 네 사람과 양참정이 이르렀다. (중략) 양부인이 화씨를 불러 상서의 관복을 입히라고 하시니, 명령을 듣고 나아가 관대(冠帶)를 받들어 섬겼다. 양부인이 남모르게 눈길을 보내 그 행동거지를 살피니, 화씨가 얼굴색이 흙빛이 되어 그 웃고름과 띠를 매는데 손이 떨려 쉽

하고 예법을 연구하였다. <소현성록> 1권 52~53쪽.

게 하지 못하였다. 그옥이 애달프게 여기고 있는데 관대를 섬기기를 마치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직하니, 양부인이 슬퍼하며 감탄하여 눈물을 흘렸다.

상서도 또한 눈물을 머금고 위엄 있는 의식을 갖추어 석씨 집에 이르러 기러기를 전하였다. 신부가 교자에 오르기를 기다리니, 소저가 여러 보물로 몸을 잘 단장하고 백냥(百兩) 수레에 올랐다. 상서가 순금으로 된 자물쇠를 가지고 덩을 잠그고 말에 올랐다. 칠왕과 팔왕 두 제후가 요객(繞客)이 되고 만조백관(滿朝百官)이 십 리에 벌여 있으며 무수히 따라오는 사람들이 좌우에 가득 어깨를 겹칠 정도로 있어, 티끌이 해를 가리니 그 풍성함을 이루다 기록하지 못하였다.

자운산에 이르니, 중당(中堂)에 혼인 예식을 치를 자리가 잘 차려 있었다. (중략)

다음 날에 시어머니를 뵈고 사당에 절하는 데 예의를 갖추어 행하였다. 축하하러 온 손님이 구름 같았다. (중략) 이윽고 신부가 나와 폐백하는 예를 마치고 단장을 새로 고쳐 시어머니께 잔을 올렸다. (중략) 종일 마음껏 즐기다가 잔치가 끝난 후, 신부의 숙소를 벽운당으로 정하였다. 신부 숙난소저가 침소로 돌아와 단의(檀衣)를 바르게 입고 촛불을 대하여 있었다.³⁴⁾

매파 네 명과 외조부가 혼례에 참여하러 먼저 오고, 신랑의 첫째 부인 화씨가 둘째 부인 맞을 혼인날의 길복을 지어 관례대로 남편에게 입히는 준비 과정부터 보여준다. 이후 신랑이 신부 석씨의 집에 가서 전안(奠雁)하고 신부를 데리고 요객(繞客)들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른다. 이 친영(親迎)의 예가 당시 혼례의 중요한 변화인데 이와 더불어 여성이 시택에 귀속되는 정도가 커졌다. 혼인 다음 날에는 사당에 예를 치르고 폐백을 하는 것까지 예법대로 진행된다.³⁵⁾

34) <소현성록> 2권 46~51쪽.

35) 다음날 폐백을 받들고 사당에 올랐다. 생이 잔을 올리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니 눈물이 푸른 옷소매를 적셨다. 이 모습을 보고 신부 또한 마음에 감동하여 낮빛을

상례(喪禮)는 양부인이 죽고 나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는데, 이는 <소현성록> 별전 마지막 권에 나오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지만 각주³⁶⁾로 제시하였으니 수업 시간에 읽어도 좋다. 본전에서는 소현성의 아버지 소광이 죽고 나서의 상황이 제시되는데, 온 집안이 곡(哭)하고 염(殮)을 하고 초상(初喪)을 마치고 나서 3년 동안 제사를 지내며 아내인

가다듬었다. 그리고 사당에서 내려와 새 단장을 하고 부인에게 예를 올리니 부인이 기쁨과 슬픔을 가라앉히지 못해 시원한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였다. <소현성록> 1권 47쪽.

- 36) 사경(四更) 말에 태부인이 운명하였다. 향년 115세였다. 소부인과 화부인, 석부인이 여러 아들, 손자들과 함께 초혼(招魂)하여 발상(發喪)하니, 울음소리가 하늘에 쏘였다. (중략) 반합(飯合)과 슬렴(襲殮)할 때에 운경, 운성을 데리고 입관(入棺)하고 빈소(殯所)를 차려 초상(初喪)을 마쳤다. 일을 다스리기를 매우 정숙하게 하여 편안하지 않은 일이 없었고 밖에 나가 조문객을 보지 않았으며 입관하기 이전에는 시신을 지키느라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곡하며 울기를 때때로 하여 지루하게 울지 않고 단지 시신을 붙들고 평상시에 모시던 것과 같이 하여 전혀 곡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으니 아들들이 기뻐하였다. 그러나 상복을 입기에 이르러서는 소승상이 길게 소리를 한 번 지르고 입에서 피 두어 말을 토하고 혼미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바야흐로 상복을 찾아 입고 상막(喪幕)에 었드려 조문객을 받았다. (중략) 장례일이 다다르니 황제와 황후가 제사를 지내시고 예의를 갖춰 장사 지내게 되었다. 승상이 어머니의 영구(靈柩)를 이별하게 되니 마음이 베이는 듯하여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며 상여를 붙들고 선산에 이르렀다. 승상이 울음을 그치고 친히 지리를 살펴 부친과 합장하였는데, 봉분(封墳)을 이룬 후에는 또 통곡하는 목소리가 처절하고 슬펐다. 모인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빈소에 온 손님들도 감동하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목주(木主)를 싣고 돌아오는데 초룽이 백 리 가량 이어져 불빛이 하늘에 나란하였다. (중략) 소부 안으로 들어가 취성전에 위패(位牌)를 받들어 안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니 승상이 심하게 슬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중략) 밤낮으로 곡을 하여 석 달 동안 피눈물을 흘렸으니 어찌 쇠하지 않으며 어찌 피폐해지지 않겠느냐? 졸곡(卒哭)을 지내고 나서 병이 심하게 되니, 황제께서 내시를 보내 고기즙을 권하였다. 소승상이 듣지 않고 괴로워하였지만 하루 네 번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병이 위태로워 살지 못하게 되었어도 끝내 상복을 벗고 눕지 않더니, 수명이 다하는 날에 목욕재계하고 어머니 위패가 있는 방에서 크게 울고 아버지 사당에서 절한 후 내당으로 들어와 취성전을 둘러보았다. <소현성록> 15권 57~62쪽.

양부인은 육즙을 먹지도 않고 슬퍼한다. 절차보다는 슬픔을 강조한 것이지만, 상례의 일단을 볼 수 있다.

은 집안이 곡하기를 마지아니하였다. 염을 하여 초상을 마치고 양부인이 설움을 품고 제사를 치르더니 한 달이 지나자 양부인 기력이 장차 위태롭게 되었다. 부인은 태아가 잘못 될까 두려워 사소한 설움은 억지로 참고 큰 의리를 생각하며 한 그릇 육즙을 들고 관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중략) 말을 마친 후에 목 놓아 큰 소리로 울고 끝까지 마셨다. 그리고 침소(寢所)에 돌아와 제사를 받들고 더욱 엄하고 바르게 집안을 다스렸다. 장례를 다 치르자 자운산 동쪽에 묻고 새삼 슬퍼하니 양참정이 아침저녁으로 딸을 위로하며 지냈다.³⁷⁾

이후, 양부인은 아버지가 죽자 혼절할 정도로 슬퍼하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기운을 조절하여 위급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끝내 고기즙을 먹지 않고 3년을 지낸다.³⁸⁾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소현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에 피를 토하고 위급해져 3년을 못 넘길 정도가 되어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효성을 강조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느낀 부모상의 위중함을 알 수 있다.

* 토의 내용 - 자국의 혼례와 상례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다. 현대 한국의 혼례와 상례를 안다면 이야기하고, 이 작품 속의 경우와 비교해 보게 한다. 나라마다의 고유성, 한 나라 안에서의 문화의 계승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 있다.

37) <소현성록> 1권 11~12쪽.

38) <소현성록> 4권 54~55쪽.

3) 가치관과 제도

이 작품은 여성들의 심리 묘사가 자세하고 그녀들의 목소리도 제법 당당하게 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대인들의 남성 중심적 사고, 가부장 중심적 사고방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하다. 그래서 여성 친화적 측면과 여성 교육적 측면이 공존하는 작품이라고 평가³⁹⁾되기도 하는 등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절에서는 당대의 가치관이나 제도를 반영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앞에서 부부갈등 상황에서 보았던 사건 이후에 소현성이 화씨에게 하는 말을 통해 당시의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덕목을 알 수 있다.

(소현성이) 매우 경계하고 책망하며 말하였다.

“무릇 여자란 것은 사덕(四德)⁴⁰⁾이 넉넉하고, 칠거(七去)⁴¹⁾를 삼가며, 유순하러 힘쓰고, 지아비를 부끄러워하며 섬겨야 하오. 그래야 가히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욕 먹이지 않으며 사람의 아내 되어 은혜와 의리를 잃지 않고 몸이 평안할 것이오. 부인은 그렇지 않아서, 모친을 받들며 효성이 게으르고, 사람을 대접하고 사물을 마주할 때에 기색이 너무 강하여 온순하지 않으며, 나를 섬김에는 당돌하고 소홀하며, 말을 할 때에는 온화하지 않으니, 무엇을 착하다고 일컬어 공경히 대하겠는가? (중략)

내가 단지 아이들 얼굴을 봐서 당신을 대놓고 책망하지는 않고 잘 가르치지 못한 죄로 유모에게 약간의 형벌을 주었네. 그 후 외당에서 여러 달을

39)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褒貶)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2015.

40) 사덕(四德): 여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목. 부덕(婦德-마음씨), 부언(婦言-말씨), 부용(婦容-뎌씨), 부공(婦公-숨씨)

41) 칠거(七去): 칠거지악(七去之惡). 여자가 행하면 안 되는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효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몸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머무르며 놀란 마음을 진정하면서 당신의 흉한 말을 잊으려고 혼자 지낸 지 칠팔 개월이 되었네. 그러던 중 어머니의 말씀이 있어 마지못하여 온 것이네. (중략)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악(七去之惡) 중에도 있으며, 그대 또한 옛 일을 잊히 두루 보았으니 알 것이네. (중략) 또 지금 나에게 재취하라고들 권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다 하늘의 운수라 사람의 힘으로 할 바가 아니네. 그런데도 부인이 드러나게 근본 없는 투기를 하니 어찌 죄를 더하지 않겠는가? (중략) 그러니 부인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게. 또 설사 내 벼슬이 높아져 진실로 그대하고만 함께 하지 못하여 재취할지라도 쾌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네.⁴²⁾

여자는 네 가지 덕(德) 즉, 마음씨와 말씨, 맵씨, 숨씨가 좋아야 하며, 일곱 가지 악행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시부모 중 한 명인 서모에게 불손했던 일을 책망한다. 불손했던 이유가 서모가 재취를 주선한 것 때문이었으니 이는 투기를 한 것이 되므로 칠거지악 중 한 항목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또 책망한다. 즉 당대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재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남성들은 이렇게 아내를 여럿 두어도 되었으나, 여성들은 일생동안 한 남성만을 바라보아야 했다. 즉 절개를 지켜야 했으니,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 작품에서 극단적으로 형상화된 면이 있지만 당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양부인은 딸 교영이 사통(私通)했음을 알고 가문에 누를 끼쳤으니 죽으라고 한다.

그러자 양부인이 꾸짖었다.

“네가 스스로 네 몸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이 죽으라고 재촉할 때가

42) <소현성록> 2권 7~11쪽.

지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물며 그렇거든 무슨 면목으로 ‘용서’ 두 글자를 입 밖에 내느냐? 내 자식은 이렇지 않을 것이니 내게 어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비록 유배지에서는 약해서 절개를 잃었다지만 돌아오게 되어서는 그 남자를 거절했어야 옳거늘 문득 서로 만나자고 언약하고 사는 곳을 가르쳐 주어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이는 나를 훔이나 나무토막같이 여기는 것이다. 내가 비록 일개 여자지만 자식은 처단할 것이니 이런 더러운 것을 집안에 두겠느냐? 내가 비록 구천(九泉)에 가더라도 이생과 아버지를 무슨 낮으로 보겠느냐?”

말을 마치고 약을 빨리 마시라고 재촉하며 교영에게 먹이니 월영이 머리를 두드리며 애걸하고 석과 등이 계단 아래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슬피 빌며 살려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부인의 노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매서워 겨울바람 부는 하늘에 걸린 찬 달 같았다. 소생은 눈물이 비단 도포에 젖어 자리에 고였지만 입을 닫고 애원하는 말은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그 속 뜻을 알 수가 없었다. 부인은 월영과 석과 등을 앞뒤에서 부축하여 들어가게 하고 그들의 청을 끝내 들어주지 않은 채 교영을 죽였다.⁴³⁾ 1권 39~40쪽

엄격한 양부인은 다른 가족들이 교영을 살려 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듣지 않고 끝내 딸을 죽인다.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녀들이기에 어머니 앞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이외에 태몽(胎夢), 과거(科擧) 제도 등에 대해 서술한 대목들도 있는데, 이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중요하게 계승되는 문화 중 하나이기에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있다.

신선이 웃고 소매 안에서 백옥 하나를 내는데 기이한 꽃무늬가 어른어른

43) <소현성록> 1권 39~40쪽.

하고 금으로 장식이 된 것이었다. 그가 이 물건을 처사를 주면서 말하였다.

“이는 그대 집안의 귀중한 보배이다. 값을 부를 수 없을 정도이지.”라고 하였다. 처사가 받아보니 갑자기 물건이 옥으로 된 용으로 변하고 금장식은 황금빛 구름이 되어 좌우에서 용을 호위하여 둘러쌌다. 괴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았다. 옥룡이 스스로 움직여 구름을 토하자 위에 서 있었던 성인(聖人)이 웃고 붓을 들어 ‘구름 운(雲)’자와 ‘빛날 수(秀)’자 다섯을 써서 처사를 보여 주며 말하였다. “이는 너의 성손(聖孫)이다.”

그러자 처사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아들도 없는데 어찌 후손을 바라겠습니까?”

“나는 남두성(南斗星)⁴⁴⁾이고 저 신선은 태상노군(太上老君)⁴⁵⁾이다. 이제 영보도군(靈寶道君)⁴⁶⁾이 원시천존(元始天尊)⁴⁷⁾과 태상노군과 함께 상청(上淸)⁴⁸⁾ 미라궁에서 삼청(三淸)⁴⁹⁾이 되었는데 천황이 그대의 사정과 덕에 감격하여서 삼청 사제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영보도군이 전세(前世)에서 그대에게 은혜를 입은 까닭에 자원해서 85일 말미를 얻어 내려오니 이 ‘구름 운’자와 ‘빛날 수’자가 도군의 자식이다. 다만 그대 팔자는 속세와 인연이 너무 없어서 도군이 영화롭게 되는 걸 보지는 못할 것이다. 양씨는 비록 그대와 삼생(三生)의 부부이지만 속세 인연이 중하니 84일을 쇠지(衰地)⁵⁰⁾에서 보내는 기한이 차면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중략) 두 신선이

44) 남두성(南斗星): 남방에 있는 여섯 별로 구성된 별자리. 그 모양이 말[斗]과 비슷함.

45) 태상노군(太上老君): 도가의 시조로 알려진 노자(老子)가 도교에서 신으로 모셔질 때의 존칭. 5세기 북위의 도교기록인 『위서(魏書)』의 『석로지(釋老志)』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최고신으로 취급되고 있음.

46) 영보도군(靈寶道君): 상청(上淸)에 거처했다는 신선.

47) 원시천존(元始天尊): 도교에서 제일 높은 신.

48) 상청(上淸):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늘로, 영보군(靈寶軍)이 관장한다는 하늘을 가리킴.

49) 삼청(三淸): 도교에서 신선이 산다는 옥청(玉淸), 상청(上淸), 태청(太淸)의 세 궁(宮)을 가리킴.

50) 쇠지(衰地): 쇠하는 땅. 여기에서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말.

박장대소하였다. 처사가 놀라 깨니 꿈이었다.⁵¹⁾

소광이 꿈에 신선 둘을 만나 자신의 전생(前生)이 별자리 선관(仙官)이었음을 듣고 그 인연으로 어떠한 자녀들을 낳게 되며 아내와의 인연은 어떠했다는 것도 듣는 장면이다.

* 토의 내용 - 여성에게 요구했던 네 가지 덕목, 일곱 가지 죄악 등에 대해 더 알아보고, 남녀 모두에게 억압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었던 가치관과 제도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게 한다. 현대에도 아이를 가지게 되면 태몽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연원이 오래되었음을 알아보고, 자국에서는 어떠한지 이야기하게 한다.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생의 나이 14세였다. 양부인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공명을 얻는 것이 기쁘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니 까닭 없이 과거 시험을 안 보지는 못할 것이다.”

공자가 본래 뜻이 넉넉했는데 이한림을 보고는 과거 볼 뜻이 더욱 씻은 듯 사라졌다. 그러나 편모께 효도로 봉양하며 중하게 모실 사람이 자기뿐이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생각으로 어머니 말씀을 순순히 따라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다. 이날 한생도 함께 들어가 시험을 보았다. 천자가 아홉 용이 새겨진 금상(金床)에 높이 앉으시고 문무백관이 구름같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 천자가 어필로 과거 제목을 내시고 향을 피워 하늘에 아뢰어 재주 있는 인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백관에게 말씀하셨다.⁵²⁾

소현성이 14세가 되자 과거 시험을 보아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길에

51) <소현성록> 1권 8~10쪽.

52) <소현성록> 1권 22쪽.

들어서는 것이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여 들 어간 과거 시험장에서 다섯 명의 선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효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지만 실력이 부족하여 당황하자 대신 답안을 작성해 주어 모두 합격하게 해준다.⁵³⁾ 소현성의 인품과 재능을 부각시키 기 위한 장면이지만, 과거 시험의 공정성보다는 과거 시험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주목하여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 토의 내용 - 지금의 청년들이 각종 고시(考試)를 통해 전문직에 입성하 거나 온 국민이 교육과 시험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녔음을 이야기하면 서, 고려 때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과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게 한다. 당시 시험장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자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등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나오는 말

최근 들어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 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에서 한국어학 과, 한국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어 실력 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에 일상적이고 단순한 언어 구사는 잘 할 수 있 다. 그러나 인문, 사회, 예술계통의 고급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의 문화나 가치관, 관습 등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기에 한국의 문학이 나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학계와 교육계에서는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목표 언어권

53) <소현성록> 1권 24~30쪽.

의 문화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교과목으로 외국인 전용 한국어 문학 수업을 개설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런 수업을 통해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즉 이해력, 사고력, 논리력을 훈련하고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민들도 언어를 배울 때에 문학을 병행하여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가르쳐야 할 때인 것이다.

문학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현대문학을 교육의 제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고전문학 중에서는 설화와 신화 몇 가지가 활용될 뿐이다. 한국학과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 대학들에서도 <금오신화>, <홍길동전>, <구운몽>, <춘향전>, <운영전> 정도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많은 한국어 교수자들이 한국문화와 한국문학 관련 교재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과 요구에 힘입어 본고에서는 한국의 고전문학을 활용하여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인물의 다양한 활동이 흥미롭게 벌어지는 서사문학 즉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고전소설의 하위 유형 중 ‘국문장편 고전소설’은 17세기 중후반부터 향유되던 긴 길이의 국문 소설로, 가문소설, 대장편소설, 대하소설 등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인물들의 성격이 확실하고 개성 있으며, 심리나 장면 묘사가 섬세하고, 다양한 갈등이 형상화되어 있으므로 문학 수업의 제재로 적절하기에 이를 활용한 외국인 교육 방안을 구성해 보았다. 특히 17세기 후반의 생활상과 문화를 잘 담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많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소설들보다 쉽게 읽힐 수 있는 <소현성록>을 예로 들어 문학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작품의 인물과 서사를 이해시키고 인물 간의 관계와 갈등 양상을 설명한 뒤에, 이 작품

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상생활과 여가 생활, 예법, 가치관과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제시된 예문들을 함께 읽고 나서 보충 설명을 한 뒤, 각 절에서 제안한 토의 내용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생들에게 인물의 심정에 대해 논하거나 자국의 생활 문화와 비교하게 하고, 당대인들의 가치관에 대해 토의, 토론하게 하면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한국어교육학회편, 『한국문화교육론』, 형설출판사, 2010, 1~411쪽.
- 김민라,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연구』 1, 2014, 1~16쪽.
- 문리화, 「<운영전>의 인간관계와 심리적 갈등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독해」, 『문학치료연구』 46, 2018. 1, 123~149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4, 1~250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2006, 5~37쪽.
-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1999, 127~154쪽.
- 신영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학 교육의 방법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1, 통권 18, 2016, 89~115쪽.
- 신윤경, 「한국의 가치문화 교육과 문학 활용」, 『한국어문교육』, 2011, 77~98쪽.
- 양민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2006, 101~125쪽.
- 임경순,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419쪽.
- 정선희·조혜란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 2010, 1~387쪽.
- 정선희, 「고전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 국문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2, 2010, 83~121쪽.
- 정선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가치관 교육 체계 확장을 위한 시론 - <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7, 2013, 29~60쪽.
-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한국고전연구』 30, 2014, 397~426쪽.
-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褒貶)양상과 고부상(姑婦像)」, 『문학치료연구』 36, 2015, 9~39쪽.
-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장편 규방소설의 형성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 1998, 293~328쪽.
- 한길연, 「중등교육과정에서의 고전 대하소설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 - 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32, 2016, 119~158쪽.

한성금, 「고전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2, 2015, 165~186쪽.

Tran Thi Huong,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195~202쪽.

ABSTRACT

The study on ways to teach Korean culture
using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s

Jeung, Sun-Hee

Recently, the need for education about not only Korean language but also Korean culture and values arises for effective academic activities as advanced Korean learners increase. It is appropriate to learn about classical literature in order to know about inherited Korean culture. Above all, it will attract foreign students' attention to teach using classical novels in which various characters do interesting activities.

Therefore, this paper shows a model of Korean family narrative and draw up measures to teach Korean culture using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s which show vivid descriptions and lives of various characters. Especially, it proposes a method of teaching literature by presenting <Sohyeonseong-rok> which shows life and culture in 17th century as an example.

First of all, the paper explains about characters, narratives, relationships and conflicts between characters. Then, it explains about daily life, leisure life, etiquette, values and systems. If an educator allows students to discuss about characters' emotions and values of people of the day, and to compare the culture with their own countries' culture, it will be helpful for deeper understanding.

Key Words Korean culture, Korean classical novels, Korean classical full-length novels, <Sohyeonseong-rok>, narratives, daily life, etiquette, values and systems

논문투고일 : 2018.04.13

심사완료일 : 2018.05.09

게재확정일 : 2018.05.15